

고전소설 속 여성 생활 문화의 교육적 활용 방안 연구

- 국문장편소설을 중심으로*

정선희**

<차 례>

1. 고전문학을 활용한 대학 교양 교육의 필요성
2. 국문장편소설의 특성과 교육 제재로서의 의의
3. 국문장편소설 속 여성 생활 문화의 교육 내용과 목표
 - 1) 일상적 의무와 의·식·주 - 옛 여성들의 일상생활 경험
 - 2) 가족 내 인간관계 - 자기 존재 성찰과 가족 의식 제고
 - 3) 놀이와 여가생활 - 긴장·이완의 교적 통한 서사 진행의 완숙미 감상
4. 맺는 말

<국문초록>

대학의 교양 교육에서 우리의 고전문학 작품을 읽고 감상하게 해야 하는 필요성을 제시하고, 그 일환으로 국문장편 고전소설을 수업의 제재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소설들에는 삶의 다양한 국면들이 반영되거나 굴절되어 있기 때문에 당대 여성 향유층의 생활과 욕구를 보여준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가족 서사의 전형과 서사 기법의 완숙미, 세련된 장편화 방식을 보여주며, 다양한 인물들의 생생한 묘사, 선악 대비와 주변 인물의 활약을 통한 재미를 주고, 독자들의 지적인 호기심을 만족시켜 주기도 한다.

이상과 같은 교육적 의의가 있는 소설군인 국문장편소설을 교양 과목의 수업에 활용한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논하였다. 먼저, 이들에 담긴 여성의 생활 문화를 일상적 의무와 의식주, 가족 내에서의 인간관계, 놀이와 여가생활의 항목으로 나누어 살폈다. 이러한 내용을 교육받음으로써

* 본 연구는 2010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RP-지원사업에 의한 결과임.

**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학술연구교수.

학생들은 옛 여성들의 일상생활을 간접 경험하여 자신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이해하고 한 민족이라는 동질감도 느끼게 될 것이다. 또한 가족 내에서의 자기 존재의 위상에 대한 성찰을 하고, 다양한 인물들 간의 갈등과 해결 양상을 통해 인간관계를 배우게 되며, 아울러 갈등이나 긴장이 고조되다가 놓이나 여가 생활의 화소가 삽입되면서 분위기가 이완되는 등의 서사 진행의 묘미를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문학교육을 통해 그 문학이 산출된 세대인들과 대화하고 공유할 수 있는 토대를 체득하게 하며, 인간 삶의 다양함을 알고 깨닫는 경험을 확충하여 결과적으로 개인의 성장을 이루게 한다는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게 될 것이다.

주제어 대학 교양 교육, 고전소설 교육, 국문장편소설, 여성 생활 문화, 일상생활, 의식주, 가족, 인간관계, 놀이

1. 고전문학을 활용한 대학 교양 교육의 필요성

본고는 대학에서 교양 교육을 할 때에 고전문학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교양 과목을 개설하여 학생들의 인문학적 소양과 사고의 확장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고전문학에 담긴 정신과 미학 등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한다. 대학생들이 고전문학을 통해서 문학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상상력을 키우며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창조의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학에서의 고전문학 교육의 기본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읽히고 모범이 될 만하다고 인정된 문학 작품, 즉 ‘고전’을 교양 과목의 수업 대상으로 다룸으로써 우리 민족의 문학적 전통과 정체성을 파악하고 한국문화를 다층적으로 조망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고전문학을 교양 교육에 활용하는 일은 대학생

들의 인문학적 소양과 사고의 확장에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학생들이 스스로 읽고 생각하고 쓰는 학문적 소통 능력 및 표현력, 논리적 사고력을 함양하여 다양한 지적 활동과 전공 교육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고전문학 관련 과목을 주로 전공과목으로 개설하여 학문적 연구 성과의 전달과 학습 위주로 강의하는 데에 주력해왔다. 그래서 학생들이 전공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 과목을 이수하기는 했지만 고전문학을 문학으로 감상하면서 감동받거나 현재의 우리의 문제에 적용하지는 못했던 듯하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이 점점 고착된다면 우리의 고전문학은 더 이상 ‘문학’으로 계승되지 못하고 ‘지식’으로만 전달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필자는 지금의 학생들이 고전문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법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교양 과목을 설계하려 한다. 그들에게 중요하게 인식되는 세부주제를 정하여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을 연계하여 이해하고 감상하게 한다든지, 고전문학을 통해 옛 사람들의 일상생활이나 풍속, 가치관과 예법 등을 재구해 보게 하여 문학과 삶을 접목할 수 있게 한다든지, 영화나 드라마·게임 등 매체들과 연계하여 현대적으로 재창조할 수 있게 하도록 교육하는 교양 과목의 개발이 시급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고전문학 교육에 관한 연구는 심도 있고도 다각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졌다.¹⁾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중·고등학교에서 국어와 문학 시간에 고전문학을 교육하는 방향과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리하여 고전문학 작품을 바라보는 논의의 관점에 따라 이해론, 표현론, 문화론, 수용자론, 제도 및 실천론 등의 세부 영역으로 나

1) 서유경, 『고전문학교육 연구의 새로운 방향』, 『국어교육』123집, 2007. 6. 참조.

눌 수 있을 정도로 체계적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새로운 방향 제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비해, ‘대학에서의 고전문학 교육’ 특히 ‘고전문학을 교양과목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미하다. 한국고전연구학회의 2007년 기획 논문들²⁾에서 대학에서의 고전문학 교육에 대해 다룬 적이 있지만 주로 전공과목으로 교육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었다. 예를 들어 고전소설 분야의 경우 고전소설론, 고전소설강독 등의 전공과목을 교육할 때에 변화된 대학 교육 환경에 어떻게 발맞출 것인가를 고민한다든지, 고전시가 분야의 경우 고전시가를 교육할 때에 자기-중심적 틀에서 벗어나고 텍스트-중심적 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사적 흐름과 대학 교육 현장의 경향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좀더 적극적으로 고전문학 교육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할 필요성을 제기하게 되었다. 이에 논의의 방향을 ‘문학을 통해 보는 삶’으로, 구체적인 분야를 ‘국문장편 고전소설에서 드러나는 여성의 생활문화’로 설정하여, 이를 활용한 교양 과목 마련을 위한 논의를 해 보려 한다. 국문장편 고전소설은 주된 향유층이 여성이었고³⁾, 내용에 있어서도 여성의 생활과 의식을 엿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⁴⁾ 때문이다.

2) 정병헌, 「대학 고전문학 교육의 현상과 전망」, 『한국고전연구』15집, 2007. 6.; 권순금, 「대학 고전소설교육의 지향과 방법」, 『한국고전연구』15집, 2007.; 신동훈, 「21세기 구비문학 교육의 한 방향-“신화의 콘텐츠화”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15집, 2007.; 최규수, 「대학생을 위한 고전시가 ‘교육’의 몇 가지 키워드」, 『한국고전연구』15집, 2007.

3) 장시광(『조선후기 대하소설과 사대부가 여성 독자』, 『동양고전연구』29집, 2008. 6.)은 조선후기의 몇몇 기록들과 선행 연구를 증거로 들면서 국문장편 고전소설(대하소설)은 사대부가 여성의 폭넓은 독서 경험과 수신(修身) 위주의 교육, 징표(旌表) 정책의 활성화 등의 생활 환경을 담고 있다고 하였다.

4) 양민정, 「대하 장편가문소설에 나타난 여성인식과 의의」, 『연민학지』8집, 2000.; 이지하, 「조선후기 여성의 어문생활과 고전소설」, 『고소설연구』26집, 2008. 12.

2. 국문장편소설의 특성과 교육 제재로서의 의의

‘국문장편소설’은 ‘낙선재본 소설’, ‘가문소설’, ‘대하소설’ 등으로도 불리는데, 수천 권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상당히 많은 독자를 확보했던 소설군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 작품이 15권에서 40권 이상 되는 대장편이고 등장인물이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에 이를 만큼 무르익은 소설 기법을 보여주면서 다양한 인생사를 담고 있는 훌륭한 작품들인데도 현대의 독자들은 이들이 장편거질이라는 이유, 현대역된 작품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인해 거의 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본고에서 주된 대상으로 삼는 ‘삼대록계 연작형 국문장편소설’은 3대라는 가족사 서술의 전범이 되면서 전·후편으로 연작이 지어질 만큼 인기를 끌었던 작품들이다. 길이가 길고 고어(古語)로 필사되어 있기에 독해의 어려움이 있어 현대의 독자들에게 많이 읽히지 않았지만, 최근에 현대역으로 출간된 서적들⁵⁾이 있기에 수업 시간의 교육 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용이한 편이다. 물론 현대역본을 읽는 일도 결코 쉽지는 않지만, 이 과목을 통해, 서양의 고전 작품들만 독서했거나 우리 고전소설 중에서는 판소리계 소설이나 몇몇 영웅소설만을 읽어본 대학생들이 고전소설을 보다 폭넓게 읽어 그 문학적, 문화적 가치를 알고 감상할 수 있었으면 한다. 대상 작품은 <소현성록>·<소씨삼대록>, <유효공선행록>·<유씨삼대록>, <성현공숙렬기>·<임씨삼대록>, <현몽쌍룡기>·<조씨삼대록> 등이다.

5) 정선희의 역주, 『소현성록』1~4권, 소명출판, 2010. ; 김문희의 역주, 『현몽쌍룡기』1~3권, 소명출판, 2010. ; 김문희의 역주, 『조씨삼대록』1~5권, 소명출판, 2010. ; 한길연의 역주, 『유씨삼대록』1~4권, 소명출판, 2010. ; 김지영의 역주, 『임씨삼대록』1~5권, 소명출판, 2010. 본고의 인용문들은 모두 이에 의거하지만, 출전은 고서 원문의 권과 면수를 표기함.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국문장편 고전소설의 특성과 교육 제재로서의 의의를 정리한다.

먼저, 가족 서사의 전형과 서사 기법의 완숙미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의가 있다. 주몽 신화에서 천제(天帝)→해모수→주몽→유리로 이어지거나 단군 신화에서 환인→환웅→단군으로 이어지는 것과 같은, 할 아버지-아버지-나, 또는 아버지-나-아들에 이르는 3대의 이야기를 근간으로 하여 4대, 5대로 확장되어가는 가족 서사의 전형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특히 <소현성록>은 주인공 소경의 아버지 소광이 일찍 죽어 아버지가 부재하는 상황이 신화 속 주인공과 같아서 어머니의 역할이 확대된다는 점도 가문을 세우기 위해 노력한다든지 하는 이야기가 전개된다. 이러한 가족 서사를 읽음으로써 학생들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며, 가족과 가문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국문장편 고전소설은 우리 서사문학의 기법적인 완성도와 세련된 장편화 방식을 맛볼 수 있게 한다. 문무(文武)와 강온(強穩)을 조화롭게 설정⁶⁾한다든지 유사 형태를 반복적으로 병치하거나 상반된 내용을 대조적으로 병치⁷⁾하는 등의 서술 전략을 사용하였다. 아울러 요약 서술이나 사전 제시를 통해 독자의 이해를 돕거나,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두 사람이 서로 상대방을 공격하여 권위를 격하하는 서술방법을 사용하여 웃음을 유발한다거나, 인물들의 과도한 행위를 간접적으로 제시하여 상황을 재현하거나, 다른 국문장편 고전소설의 인물과 서사를 차용하여 교차적으로 서술하는 등의 전략⁸⁾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또는 서술자가 지향하는 의식을 담기 위해 어떤 상황이나 문구를 반복적으로 묘사하는 서술을

6) 조용호, 『삼대록소설 연구』, 계명문화사, 1996.

7) 박일용, 「현몽쌍룡기의 창작방법과 작가의식」, 『정신문화연구』26권 3호, 2003.

8) 김문희, 「<조씨삼대록>의 서술전략과 의미」, 『고소설연구』26집, 2008. 12.

활용⁹⁾하기도 하였다.

둘째로, 다양한 인물들이 생생하게 묘사되고 선악의 대비, 주변 인물들의 활약을 통해 재미를 준다는 점이다. 이들은 주로 가문의 창달과 계승이라는 뼈대를 중심에 두고 주인공 부부와 그 자녀 부부의 혼인과 갈등 양상을 다양하게 보여준다. 특히 조선후기의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가족 관계 속에서 생산적인 행위에 더욱 강하게 구속받거나 현실적인 역할에 의해 존재 의의가 규정되었기에 여러 가지 일상적인 의무에 지친 일상 속에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대상으로 소설을 읽었다. 따라서 소설에는 그들을 위로하거나 그들의 욕구를 반영하거나 또는 그들을 교육시키려는 내용과 시각이 들어 있는 등 대중문화로서의 역할도 하였다.¹⁰⁾ 이러한 향유층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선악의 대비를 극단적으로 설정하거나 환상적인 도술이나 환약 등을 사용하기도 하고 도사나 유모, 시비 등 주변인물 등을 총동원하여 서사의 흥미를 높였다.¹¹⁾

셋째로, 독서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독자들의 지적인 호기심을 만족시켜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조선후기 사대부가의 여성들은 『소학(小學)』, 『내훈(內訓)』, 『내칙(內則)』, 『여사서(女四書)』, 『열녀전(列女傳)』 등의 수신서(修身書)를 비롯하여, 『논어(論語)』, 『예기(禮記)』, 『상서(尙書)』 등 경서(經書)와 『십팔사략(十八史略)』 등 역사서를 읽었다.¹²⁾ 여기에 더하여 사상서, 문집류, 시문류, 소설류 등을 두루 읽고 외었기에 그녀들이 주로 향유했던 국문장편 고전소설에도 이러한 독서 경험

9) 조혜란, 「취향의 부상-〈임씨삼대록〉의 반복 서술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37집, 2010. 6.

10) 이지하, 앞의 논문. 319~324면.

11) 정선화, 「〈조씨삼대록〉의 악녀 형상의 특징과 서술 시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8집, 2009. 6.

12) 조혜란, 「조선 시대 여성 독서의 지형도」, 『한국문화연구』8집. 2006.

과 지식들이 녹아들어 있다. 따라서 소설을 독서하는 과정에서 이를 재확인하고 작품의 상황과 문맥에 맞게 다시 해독하면서 더욱 흥미롭게 읽어나갔을 것이며, 여성의 부덕과 내조를 갖춘 여성이 가장 이상적인 여성임을 단어나 어구를 반복적으로 읽음으로써 학습하기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같은 전고(典故)라 할지라도 현실적 상황 논리를 강조하기 위해 인용한다거나 여성의 욕망을 인정하는 근거로 인용하기도 하는 등의 변주를 통해 중층적인 의미를 드러내어 여성 독자들에게 더욱 흡입력 있게 읽혔을 것이다.¹³⁾ 현대의 소설 독자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지식들을 아울러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로, 삶의 다양한 국면들이 반영되거나 굴절되면서 당대인들의 생활과 욕구를 보여준다는 점이다. 17~18세기의 국문장편소설들은 당대의 문학적 산물이기에 당시의 풍속이나 생활과 같은 일상의 모습을 보여준다. 물론 소설이 창작 당시의 역사적 사건이나 사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기에 직접적인 사료로 활용될 수는 없다. 하지만 공적인 역사서 등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삶의 다양한 양상들과 보다 솔직하고 정확한 정보들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여성들의 의생활과 주거 생활은 어떠한지, 집안에서 주로 담당했던 일은 무엇이었는지, 여가는 어떻게 활용했는지,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 중요하게 여겼던 바는 무엇이었는지, 부부간의 예의나 갈등 상황, 부모-자식 간의 관계는 어떠한지 등 일상적인 생활이나 문화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국문장편 고전소설은 학생들이 옛 여성들의 일상생활과 문화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하고, 가족 내에서의 자기 존재의 가치와 위상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인물들 간의 갈등과 해결 양상을 통해 인간관계를 배우게 되며, 긴장과 이완이 교차되

13) 김문희, 「장편가문소설의 전고와 독서 역학적 연구」, 『한국고전연구』21집, 2010. 6.

면서 진행되는 서사의 완숙미 감상, 작품에 녹아 있는 여러 가지 문학 작품과 경전 구절들을 통한 독서 경험의 확충 등의 면에서 문학 교육의 제재로서 충분한 가치와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는 실제로 학생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내용과 목표에 대해 상술하도록 한다.

3. 국문장편소설 속 여성 생활 문화의 교육 내용과 목표

1) 일상적 의무와 의·식·주 - 옛 여성들의 일상생활 경험

조선후기 사대부가 여성의 일상생활은 어떠했을까? 여성의 생활을 비교적 짚진하게 담고 있다고 평가되는 국문장편 고전소설들에서도 이를 완전하고도 친절하게 안내해 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단편적인 서술들을 모아보면 어느 정도 재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¹⁴⁾

조선시대의 상층 양반계층 여성의 일은 하층 양반 여성이나 평민 여성들이 했던 직조(織造)나 농업 노동과는 거리가 멀었고, ‘봉제사(奉祭祀)’, ‘접빈객(接賓客)’이 가장 대표적인 일이었다.¹⁵⁾ 그런데 소설에서는 제사를 준비하거나 모시는 장면은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혼인이나 과거 급제 시에 사당에 참배한다는 서술은 간략하나마 종종 등장한다. 손님을

14) 이지영(『조선후기 대하소설에 나타난 일상-〈완월회맹연〉을 중심으로』, 『국문학연구』13호, 국문학회, 2005.)은 <완월회맹연>에 서술된 조선시대 사대부 남성과 여성의 일과를 고찰한 바 있다. 이 소설에서는 주로 아침저녁 문안 인사를 드리는 장면이 서술되었는데 이는 당대인들이 이상적이라고 여기는 가족 간의 관계와 생활의 모습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였다. 총 180권이나 되는 <완월>에도 하루 일과에 관련된 유의미한 서술이 많지는 않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고 문안 인사를 드리며 낮에는 남자는 독서를, 여자는 웃어른 봉양과 음식 만들기를 하였고 밤에는 부모님 이불을 깔아드리고 인사를 드렸다는 정도의 간략한 서술들이 반복된다.

15) 이순규, 『조선시대 여성의 일과 생활』, 한국여성연구소 여성사 연구실 저, 『우리 여성의 역사』, 청년사, 1999.

접대하기 위해 음식을 장만하는 장면도 거의 등장하지 않고¹⁶⁾, 약한 여성이 선한 여성을 모해하기 위해 어르신의 음식에 독을 넣는 장면이 묘사될 뿐이다.

또 가정 경제의 운영은 가장(家長)의 부인인 주부가 총괄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남편들은 관직 때문에 바빴고 가정 경제는 사소한 집안일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여성들이 맡은 경제 관리는 토지와 농사 관리, 노비 관리 두 분야가 주된 것¹⁷⁾이었다고 하는데, 소설 속 여성들은 가정 경제 활동도 그리 활발하게 하지 않는다. 주로 글을 짓고 시사(詩詞)를 화답하며 비독으로 소일하는 시인의 풍모를 지닌 여성(<소현성록>의 소월영), 각종 서적 수만 권을 둔 서재를 가지고 있는 여성(월영), 만 권의 시와 글을 월 줄 이는 남편 김현과 시 짓기 내기를 하여 이길 수 있는 여성(<소현성록>의 소수빙), 여자 중의 군자라고 칭송되면서 천문(天文)까지 해독해 내는 여성(<조씨삼대록>의 조자염)의 모습이 더 자연스럽게 묘사된다.¹⁸⁾ 다만 몇 가지 서술을 통해, 누에치기를 중요한 일로 생각했다거나¹⁹⁾, 시 어머니 봉양과 식사 준비를 살피는 일²⁰⁾을 했음이 드러난다.

16) 음식 만들기가 집안의 안주인인 양반 여성들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였지만, 실제 요리는 하인들이 하고 주부는 비법을 전수하는 등의 책임자 역할을 했기에 소설에서는 음식을 만드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는 듯하다.

17) 이순구, 앞의 논문. 201면.

18) 이 여성 인물들에 대해서는 정선희, 『17세기 후반 국문장편소설의 딸 형상화와 의미 -<소현성록>연작을 중심으로』(『배달말』45. 2009. 12.)를 참조할 것.

19) 한가한 때를 타 소·윤·석 세 부인과 더불어 후원을 보면서 산수(山水)의 성함을 보고 내년의 누에치기를 상의하려 한 것... <소현성록> 4권 117면.

20) 석씨가 승상이 그와 같음을 보고 마음을 더욱 겸손하고 안정되게 하여, 아침 몸단장을 마친 후에는 취성전(시어머니의 처소 : 필자 주)으로 들어가 날이 저물도록 식사 준비를 살피고 석파와 이파 두 사람이 하는 바를 도왔다. 하지만 집안일에 간섭하지는 않고 말단 시녀에게도 좋지 않은 말을 하지 않으니, 사람마다 사랑하고 공경하여 시비(是非)를 가리는 일에 오르내리지 않았다. <소현성록> 4권 120~121면.

하지만 실제에서는 여성들에게 ‘부지런함’과 ‘치산(治産)’이 강요되었다고 한다. 특히 『내훈(內訓)』에서는 부지런해야 할 것, 배 찌는 일에 힘쓸 것을 강조하면서 게으르고 나태한 것은 최악이라고까지 말하였다. 또한 여성의 행장이나 묘지명에 의하면, 상층 여성들도 음식 마련하기, 제사 모시기, 농사 관리, 배 짜기, 집짓기까지 해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집안이 가난할 때에는 방직하고 농사지어 가업을 일으키고 집안을 이끌어 가야 했다. 목재 이문건의 아내 안동 김씨는 양잠 농사를 지휘하고 집안에서 생산한 명주를 높은 가격에 거래하여 수입을 올리기도 했다.²¹⁾

한편, 소설에서는 집안의 가장인 남성이 총괄하는 일과 부인이 맡은 일이 철저히 분리되어 있으며, 외당의 일은 부부가 함께 상의하지 않고 승상이 어머니나 누이들과 상의²²⁾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소현성록>에서는 집안을 다스리는 총책임자가 양부인 즉 소송상의 어머니이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양부인이 5대손까지 보았어도 집안일을 놓지 않으니, 화부인과 석부인이 또한 예의와 법도를 넘지 않아 방 안의 작은 것도 사사로운 재물과 그릇이 없이 모두 양부인에게 드려 창고 안에 넣었다가 승상과 자기에게 쓸 곳이 있으면 아뢰고 얻어 썼다. 또 비단을 얻어도 다 창고에 넣어 쓸 데가 있으면 고한 후에야 마음에 맞게 내어 쓰니 집안사람들이 다 변함없는 일로 알아 사재(私財)를 집에 두면 시녀라도 무례하다고 여겼다.

21) 김경미, 『숨은 일꾼, 조선 여성들의 노동현장』, 규장각한국학연구원편, 『조선 여성의 일생』, 글항아리, 2010. 108~127면. 참조.

22) 내외(內外)의 일을 통하지 않게 하였으며 엄숙함이 지극하였다. 그리하여 심부름하는 아이나 종 등 내당(內堂)의 시녀들은 부인의 명령을 받들지만 부인의 호령이 중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승상도 또한 스스로 내당의 일을 알지 못하였으며, 외당에 어떤 큰 일이 있어도 모친과 두 누이하고만 의논하여 결정하고 자기 부인에게는 전하여 묻지 않았다. <소현성록> 4권 120면.

그래서 양부인이 네 계절에 맞게 두 며느리와 두 딸을 불러, 석과에게 창고를 열고 이파에게 좋은 비단을 가려내게 하였다. 눈앞에서 네 부인에게 부부의 옷을 마름질하고 손자들의 옷 지을 것을 준비하여 시녀에게 지어라고 맡겨 짓게 한 후 주었는데, 반 마디 터럭만큼도 차이가 없었다. 다만 윤씨는 친가가 없고 사사로운 재물도 없어 대접해 주는 사람이 없기에 더 거두어 한 단계 더 주시니, 거룩한 덕이 이와 같았다.

네 부인이 몸이 한가하고 여력이 있었으나 의복에 간여하지 않으며, 손님 대접할 수를 헤아려 양부인 앞에서 석과 등과 더불어 술과 안주를 도울 따름이었다. 소씨와 윤씨 부인도 자기 남편의 손님맞이를 시녀에게 맡기고 아는 것이 없었으며 단지 장복(章服)과 관복(官服)을 시녀가 잘못 준비할까 하여 스스로 짓는 일 외에는 종일토록 시사(詩詞)를 화답하여 읊고 바둑으로 소일하여 시인(詩人)의 모습과 풍류 있는 거동이 있었다. 유독 석씨만은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바느질에도 간섭하지 않았다. 비록 양부인이 시절에 맞는 옷을 마름질해 주시지만 시녀에게 맡겨 완성하게 하고 스스로는 양부인 식사를 받들며 의복을 몸소 맡아 처리하여 신임을 받으면서 모셨다.²³⁾

<소현성록>에서 집안의 일, 살림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서술해 놓은 부분이다. 소승상의 어머니인 양부인이 말년까지도 집안일에서 손을 놓지 않고 주관하면서 창고의 물건들을 관리하고 계절에 맞게 며느리와 딸들에게 비단을 나눠준다는 것이다. 자녀들은 사사로운 물건 하나도 마음대로 쓰는 법 없이 허락을 받고 쓰며 의복을 만드는 일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고 시녀들에게 맡긴다. 다만 남편의 관복과 자신의 예복은 스스로 만드는데, 특히 남편이 둘째 부인이나 셋째 부인을 맞이하는 혼인 예식에 입을 길복(吉服)은 첫째 부인이 만들어야 하는 것

23) <소현성록> 4권 124~126면.

으로 되어 있어 있다. 또 며느리들은 서모를 도와 손님을 접대해야 하는데, 주로 첫째 며느리인 화씨가 맡고 있으며 작은 며느리인 석씨는 시어머니의 식사나 의복을 책임지며 봉양하기를 주로 하므로 여타의 손님 접대나 바느질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만약 시어머니가 긴 여행을 떠난다면 큰며느리가 집안의 큰일을 관장하고 물품을 나누어 준다.²⁴⁾ <유씨삼대록>에서도 부인네들은 대체로 바느질, 손님 접대 정도의 집안일을 하면서 시(詩)를 읊조리며 책을 읽는 것으로 소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²⁵⁾

그렇다면 평상시에 직접 집안일을 관장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주로 서모(庶母)가 노비들을 거느리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소현성록>의 석과 등 서모의 주된 역할은 집안 물품의 출납 관장과 손님 접대 절차 총괄, 노비 단속이었다.²⁶⁾ 여성들이 모여 다과를 먹으며 약간의 술을 마시는 장

24) (화부인이) 집안의 큰일을 쥐고는 내외를 호령하며 원인 모를 일도 굳이 알아내어 꼬투리를 잡았다. 석과와 석부인 소속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제철에 알맞은 옷과 물건을 부족하게 주어 자신의 친속들과 차등 두는 것을 명백히 했다. <소현성록> 11권 21~22면. / “...태부인이 강정으로 가신 후 화부인이 난의에게 저를 대신하라 하고 매달 주는 옷감을 줄여서 다섯 달에 비단 한 필씩을 주니, 대략 비단 두 필을 얻었으나 다 저에게 적당하지 않았습시다. 그러나 일일이 말하기 번거롭고 폐가 될 것 같아 헌 옷을 입었습니다.” <소현성록> 12권 17~18면.

25) 양한림 부인 현영이 아우인 사어사 부인 옥영과 더불어 중당(中堂)에서 바느질을 하면서 시사(詩詞)를 보고 있었다. <유씨삼대록> 6권 29면.

26) “... 부인께서 저를 깊이 믿으시어 집안의 일용하는 물건들의 출납과 손님맞이 절차를 맡기시니 밤낮으로 조심하여 조금이라도 차질이 있어 부인의 밝으심을 저버릴까 전전공공하였습니다. 또한 큰 권한을 받아 부인의 가르침을 받들어 종들을 단속한 지 60년이 되었습니다. 창고 안의 금과 비단들이 하늘같이 많으나 조금도 범하지 않아 계절에 맞는 의복과 때마다 있는 행사 외에는 감히 반 마디도 마음대로 쓰지 않았습시다. 제가 먹고 입는 것에 있어 창고 물건을 맡았고 또 부인께서 주신 것을 받들었기에 십만 재산을 임의로 가질 수도 있었겠지만, 조금도 범하지 않은 것은 제 갈공명의 염치를 기꺼이 본받은 것입니다. 제가 죽은 후 상자에 남은 금은이 있거나 방 안에 한 자의 천이라도 있어 부인께서 제게 맡기신 마음을 저버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소현성록> 15권 37~38면.

면이나 자제들이 모여 술을 마시는 장면에서도 서모의 허락이나 명으로 종들이 음식과 술을 내어 온다.

여성들의 ‘의복’은 어떠했을까? 부인들은 붉은 비단 치마와 푸른 적삼을 주로 입었는데²⁷⁾, 소씨 가문에서는 소박하게 입기를 권장하여 비단에 수를 놓거나 금사(金絲)를 더하거나 진주로 장식하거나 칠보(七寶)를 엮지 못하게 하였고 노리개도 옥패(玉佩) 한 줄만 하게 하였다. 원래 유생(儒生)의 아내는 향패(香佩) 한 줄만 하게 되어 있어 감히 더하는 일이 없었고, 젊은 며느리 중에서 봉호(封號)를 받은 부인들 즉 명부(命婦)가 된 사람들은 봉황 문양을 새긴 관을 쓰고 두 줄 옥패를 댔다.²⁸⁾

혼인 같은 집안의 큰 행사에는 금색실로 꾸민 붉은 비단 옷과 수놓은 비단 치마를 입고 쌍봉관(雙鳳冠)을 쓰고 명월패(明月佩)를 차거나, 월나라 비단으로 만든 적삼을 입고 푸른 깃을 댤 꽃무늬 치마를 입고 면류취봉관(冕旒翠鳳冠)을 쓰고 두 가닥의 백옥 띠에 명월패(明月佩)를 찬다.²⁹⁾ 신부도 채봉구화관(彩鳳九華冠)을 쓰고 구름과 안개를 수놓은 치마와 저고리를 입고 달 모양의 진주로 만든 노리개인 명월패옥(明月佩玉)을 찬다.³⁰⁾ 이 때에 첫째부인과 둘째부인의 위계가 의복에서 드러나는데, 첫째부인은 쌍봉관과 두 줄의 옥으로 만든 허리띠를 했고 둘째부인은 봉관(鳳冠)을 쓰고 꽃신만을 신는다.³¹⁾ 한편, 훌륭한 부인에게는 천자가 봉호와 함께 의복을 하사하는데, 칠보로 장식한 쌍봉관과 붉은 비단으로 만든 적의(翟衣)³²⁾와 무우리(無憂履)³³⁾, 옥대(玉帶) 등을 준다.³⁴⁾

27) 네 부인이 비단 치마와 푸른 적삼을 입고 자리를 정해 앉았다. 이렇게 양부인 앞에 붉은 치마에 푸른 적삼을 입은 여자와 …… <소현성록> 5권 113면.

28) <소현성록> 6권 37~38면. 8권 93면 등.

29) <소현성록> 12권 120면.

30) <유씨삼대록> 1권 54면.

31) <유씨삼대록> 9권 80면.

참고로, 기혼 남성의 하루를 보면, 밤늦게까지 어머니를 모셨다가 친히 이부자리를 펴드리고 베개를 바르게 해드려 어머니께서 누우신 후에야 물러나와 아내 방에서 잔다. 그리고 새벽을 알리는 북이 울리면 일어나 세수하고 아침 문안을 드리고 대궐에 가서 조회에 참석한 후 어머니께 하루 세 때 문안하고 서당으로 가서 향을 피우고 옷매무새를 바르게 하여 종일토록 단정하게 앉아 사서를 공부하고 예법을 연구한다.³⁵⁾ 한 달의 열흘은 첫째부인에게 가서 있고 열흘은 둘째부인에게 가 있고 열흘은 서당에 있는데, 엄숙하고 단엄함을 유지한다.³⁶⁾ 의복은 오사모(烏紗帽)와 자줏빛 두루마기, 옥으로 만든 허리띠를 하고, 붉고 목이 있는 신발을 신고, 손에는 아홀(牙笏)을 잡는다.³⁷⁾

‘식생활’³⁸⁾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지 않다. 다만 며느리가 시어머니 식사 봉양을 극진히 했다거나 잔치 음식을 성대하게 차렸다는 정도로 나오며, 그러는 와중에 악한 여성인물이 독약을 음식에 넣어 선한 여성을 포함하는 화소가 종종 등장할 뿐이다.

여성의 ‘주거 공간’에 대한 묘사를 보기 전에, 가문 전체의 주거 공간을

32) 적의(翟衣) : 나라의 중요한 의식 때 왕비가 입던 예복을 가리키는 말로 붉은 비단에 청색의 꿩을 수놓아 만들었음.

33) 무우리(無憂履) : 의장품 중의 하나로, 신발의 일종.

34) <소현성록> 12권 39면.

35) <소현성록> 1권 53면.

36) <소현성록> 2권 57면.

37) <소현성록> 2권 75면.

38) 식생활에 대한 조선후기의 기록들을 참고로 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대체로 아침과 저녁 두 끼를 7홉 정도씩 먹었고, 일 년 중 몇 달은 낮밥을 3홉 정도 먹기도 했다고 한다. 다만 상층인들은 아침 일찍 죽을 먹거나, 끼니와 끼니 사이에 점심(點心)을 먹기도 하였으니 최대 다섯 끼를 먹은 이들도 있었다. 또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먹는 양이 매우 많아 대식가라고 부를 만했다고 한다. 정연식, 『일상으로 본 조선시대 이야기 2』, 청년사, 2003. 77~106면.

먼저 보도록 한다. 다음은 <소현성록>의 주동 가문인 소씨 가문이 거처하는 ‘자운산’이라는 공간이다.

변(汧) 땅 남문 밖 40리 되는 곳에 있는 자운산은 둘레가 3백 리나 되었다. 산의 모습이 여덟 폭 휘장을 꽃은 듯하였는데, 앞뒤로 폭포가 솟는 곳이 70여 군데였다. 물줄기가 잔잔했고 산 앞면으로 흘러들어 맑은 못이 되었다. 못의 둘레는 10여 리였고 깊이는 1천 척이었으며 와룡담이라고 불렸다. 못과 산을 남북으로 두르고 그 가운데 장현동이라는 마을이 있었다. 둘레가 백 리에 달하는 그 마을은 마치 유리로 밀어놓은 듯 평평한 땅에 자리하고 있었다. 사면에는 울창한 푸른 대나무와 이름드리 큰 소나무가 둘러있었으며 그윽한 경치와 범상치 않은 풍광은 무릉도원 같은 별천지였고 봉래산(蓬萊山)이나 방장산 같았다.

자운산의 높이는 천여 길이고 봉우리가 열둘이나 되었다. 천지가 처음 생겨날 때 맑은 정기와 영험한 기운이 서려 있었고 그 가운데 와룡담과 자운산이 잠겨 있었기에 다른 산천에 비해 매우 기이하였다. 골짜기 가운데 한 처사가 살았는데 성은 소이고 이름은 광이었으며 그 집은 큰 나무같이 대대로 내려온 가문이었고 오랫동안 번성한 집안이었다.³⁹⁾

도성에서 40리 정도 떨어진 거리이므로 하루 안에 출퇴근이 가능하면 서도 속세와 격절된 청정한 공간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70여 개의 폭포와 이것이 흘러들어 만들어진 와룡담, 열두 개의 봉우리로 둘러싸인 둘레 300백 리의 거대한 산인 자운산을 주거 공간으로 설정하였다. 이 산 안에 있는 소씨 가문의 집은 산 속 깊은 곳에 있는 큰 못을 지나 ‘자운산 와룡담 장현동’이라고 쓰인 돌비석을 지나 ‘소처사 은성문’이라는 판액이 쓰인 문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으며 화려하고 한가로운 것이 마치 신선

39) <소현성록> 1권 4면.

의 집 같다.⁴⁰⁾

국문장편 고전소설의 공간적 배경은 비록 중국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이는 실재를 허구로 느끼기도 하고 허구를 실재로 느끼기도 하게 하는 공간 설정의 묘(妙)⁴¹⁾일 뿐, 소설에서 드러나는 일상생활의 모습은 우리나라 즉 조선후기의 것과 거의 일치한다. 주택 공간의 구성에 있어서도 내외법(內外法)을 엄격히 지켜 내당(內堂)과 외당(外堂)을 분리하고 그 사이에는 중문(中門)을 두어 서로의 시선이나 발길을 차단하게 했던 것은 한국적인 모습이다.⁴²⁾ 하지만 외당과 내당 사이에 남녀가 모이거나 손님을 접대하기도 하는 중당(中堂)을 두는 등 중국의 가옥 구조⁴³⁾를 참조한 부분도 있다.

한편, 부인들은 각각 ‘~~루’라는 당호(堂號)가 붙은 거처가 있는데 소씨 집안의 최고어른인 태부인의 거처는 마치 궁전인 것처럼 ‘취성전’이라는 당호가 붙어 있다. 사가에서는 ‘전’을 붙일 수 없고 궁궐에서도 왕과 왕비, 왕의 어머니나 할머니가 쓰는 건물에만 붙이는 칭호이니, 작품 내에서의 태부인의 높은 위상을 보여주는 작명이다. 부인들의 거처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는 묘사되지 않았지만, 운성 등 형제들이 자신의 친모인 석부인의 거처 ‘벽운루’가 화부인의 거처에 비해 작다고 하면서 새로 단장한 것에 대한 묘사를 보면 그 대강을 알 수 있다.

40) <소현성록> 1권 32~33면. <소현성록>의 공간에 대해서는 지연숙, 「<소현성록>의 공간 구성과 역사 인식」, 『한국고전연구』13집, 2006. 52~68면 참조.

41) 탁원정, 「17세기 가정소설의 공간 연구-〈사씨남정기〉, 〈창선감의록〉을 대상으로」, 이대 박사논문, 2006. 14~19면 참조.

42) 한옥공간연구회, 『한옥의 공간문화』, 교문사, 2004. 42~93면 참조.

43) 중국의 가옥 구조는 주로 집의 가운데에 마당을 두고 건물이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형태였으며 거주 공간의 남녀 구분은 있었지만 별침하지는 않았고 방위나 세대에 따른 위계적 배치를 했다고 한다. 손세관, 『깊게 본 중국의 주택』, 열화당, 2001. 참조.

석부인이 계시는 벽운루가 협소하다고 말하며 높은 루에 아름답게 단청한 누각을 100간(間) 되는 크기로 세우고 붉은 옥으로 난간을 꾸몄다. 그리고 가운데에 50간 되는 누각을 세워 남북으로 두 방을 나누고 북루(北樓)는 더위를 피하게 하고 남루(南樓)는 추위를 피하게 하였다. 넓게 두 곳을 나눠 시녀를 50인씩 두고 모친을 모시니 석부인이 비록 자녀의 효도하고자 하는 뜻을 알지만 모든 면에 있어 취성전과 같은 것을 편하지 않게 여기고는 시녀의 수를 줄이고 의복을 검소하게 하였다.⁴⁴⁾

가장(家長)의 어머니인 태부인이나 그의 첫째부인 화부인의 처소는 100여 간에 이르는 큰 규모인데다 붉은 옥으로 장식하는 등 화려한 고풍을 알 수 있다. 시집간 딸 율영이 거쳐하는 곳은 운취각, 그녀의 서재는 선적루이며, 서모 석파의 처소는 일희당이라고 하는 등 각각 처소를 부여 받았으며 어느 정도 독립된 생활공간으로 보장된 곳이다.

이상에서 <소현성록>연작, <유씨삼대록>, <조씨삼대록> 등 국문장편 고전소설을 통해 알 수 있는 조선후기 여성들의 일상적인 의무와 의식주 생활을 고찰하였다. 현대를 살고 있는 학생들이 고전소설을 독서하면서 이러한 삶의 모습을 간접 경험함으로써 자신의 뿌리가 되는 옛 여성들의 일상생활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문학교육을 통해 문학작품의 사회·역사적 맥락을 이해하여 그 문학이 산출된 당대인들과 대화하고 공유할 수 있는 토대를 체득하게 해야 한다⁴⁵⁾는 목표에 부합할 수 있다. 또한 문학은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체험을 기반으로 형성되는 사상과 감정을 다룸으로써 이 세상의 다양함, 인간 삶의 다양함을 알게 하고 깨닫는 경험을 확충하여 결과적으로 개인의 정신적 성장을 이루게 한다⁴⁶⁾는 문학 교육의 일차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44) <소현성록> 12권 40면.

45) 김대행외, 『문학교육원론』, 서울대 출판부, 2008. 246~259면.

2) 가족 내 인간관계 - 자기 존재 성찰과 가족 의식 제고

소설 속의 거의 모든 사건은 인간관계에 얽혀 있기에 어느 한 부분만을 특별히 분리하여 말하기는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 절에서는 여성 인물과 관련하여 부녀간, 모녀간, 부부간, 남매간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어떤 관계를 유지했는지, 어떤 관계를 지향했는지 등에 대해 고찰하기로 한다.

기존의 논의에서는 사건과 갈등의 양상을 분석하면서 부부관계나 부모-자녀 간 관계를 살폈다. 부부간의 갈등 양상이 단연 부각되면서 악한 아내의 계책에 휘말려 선한 아내를 남편이 내치거나 오해하는 내용⁴⁷⁾, 폭력적으로 아내를 대하는 내용⁴⁸⁾, 남편과 동등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아내의 모습⁴⁹⁾ 등이 고찰되었다. 부모-자녀 간 관계 양상도 아들에게 엄하지만 은근한 정을 표현하는 아버지, 아들 평가의 척도가 되는 어머니, 딸의 능력을 인정해주고 교육하는 아버지, 딸을 자신의 분신으로 인식하기에 더 엄격한 어머니 등의 부모상(父母像)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검토되었다.⁵⁰⁾

본고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삼대록계 국문장편 고전소설에서는 딸을 아들에 비해 덜 아낀다든지 교육을 소홀히 한다든지 하는 차별적인 면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다만, 어머니의 경우 딸에 대한 애정과 더불어 생활

46) 김대행외, 앞의 책. 45~46면.

47) 장시광, 「대하소설의 여성반동인물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04 ; 정선희, 「<조씨삼대록>의 악녀 형상의 특징과 서술 시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8, 2009. 6.

48) 정선희, 「<소현성록>에서 드러나는 남편들의 폭력성과 서술 시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4. 2007. 6.

49) 한길연, 「<유씨삼대록>의 '설초벽' 연구」, 『국문학연구』19. 2009.

50) 정선희, 「17·18세기 국문장편소설에서의 부모-자녀 관계 연구」, 『한국고전연구』21. 2010. 6.

의 면에서 잘 교육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강해 오히려 더 엄하게 교육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아버지의 경우 딸의 재능을 알아봐서 학문을 가르치거나 마음으로 아껴주는 모습⁵¹⁾을 보인다.

<소현성록>의 월영은 어머니와 가족의 신임을 받고 집안의 중대사 결정에 관여하는 딸인데, 수십 간 마루 가운데 산호와 유리, 옥으로 된 책상과 문방구를 놓고 각종 서책을 수만 권이나 쌓아 놓은 ‘선적루’라는 서재를 갖고 있다. 그 중에는 그녀가 직접 필사하거나 정리한 것들도 있고, 자신이 그린 그림들과 옛 명화들도 몇 귀짝씩 있다.⁵²⁾ 즉 그녀는 글이나 시 쓰기와 그림 그리기에 능했던 것이다.⁵³⁾ 이렇게 재능도 있고 현명한 인물로 그려지기에 가장인 소현성은 집안의 대소사를 누나인 월영과 상의하

51) 소소저(수빙 ; 필자 주)와 더불어 백년해로하여 70여 년을 함께 지내다가 한 곳에 묻혔으며 여러 자손들이 다 번창하여 입신양명했고 효심이 깊었다. 이는 아버지 소송상이 지극한 의지로 규방안의 천금같은 딸아이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현성록> 13권 136면.

52) <소현성록> 12권 101~102면.

53) 이렇게 시서(詩書)에 능하고 공부를 잘하는 여성의 모습은 소현성의 딸들인 수빙, 수주 등에게서도 보이며 <유씨삼대록>, <조씨삼대록> 등 다른 작품들에서도 종종 보인다. / 수빙 소저가 마치못하여 두어 수 화답시를 짓고는 즉시 일어나서 내당으로 들어갔다. 마침내 김현이 소저의 글을 보게 되었는데, 말마다 비단 같고 글자마다 옥 구슬 같았다. 비록 사도온의 글 솜씨라도 이에 미치지지는 못할 것이었다. 감탄을 참지 못하여 차마 손에서 글을 놓지 못하고 즉시 자신도 차운시(次韻詩)를 지어 함께 모인 사람에게 보였다. <소현성록> 13권 98면. / 장씨가 마음 가운데 한 점도 원망하고 한 하는 것이 없었다. 아침 세수를 한 뒤에는 정전에 나가 종일토록 시서와 예악을 진양공주에게 묻고 배우면서 의문 나는 점을 논하였으니 예전의 현인들의 풍모를 이었다. <유씨삼대록> 4권 10면. / 여러 사람들이 일제히 그것(진양공주의 수석시(壽席詩): 필자 주)을 보니 문체의 깊음이 상고(上古) 때와 같아 요순(堯舜)의 문장과『춘추(春秋)』의 침삭을 견비하였고 필획이 종요(鍾繇)와 왕희지(王羲之)의 무리를 압도하여 용과 봉황이 한 곳에서 만나는 듯하니 만고에 비할 데가 없었다. 그러나 글이 적고 말뜻이 간절했어도 그 뜻을 아는 것은 어렵고도 어려웠다. 모든 사람들이 글을 보고 탄복하길 마지않았다. 시부모와 성의백은 더욱 흠모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말했다. <유씨삼대록> 7권 81~82면.

여 결정한다. 또한 그녀는 1년 중 8~9개월을 친정에서 사니 남편 한생도 따라와서 함께 지내며⁵⁴⁾, 또 한 명의 딸인 윤부인도 강정에서 따로 살지만 한 달 중 10일씩은 친정인 자운산으로 와 즐긴다.

딸이 친정아버지의 제사를 지내는 경우도 보인다. <소현성록>에서 소운명의 아내 이씨가 그러했고⁵⁵⁾, <유씨삼대록>에서 유세창의 아내 설초벽이 그러했다. 특히 설초벽은 자신만의 공간으로 떠나 살면서 부모의 사당을 짓고 자신의 둘째 아들을 데려다가 친정의 혈통을 잇게 하기까지 하는 등⁵⁶⁾ 친정부모에 대한 효도를 다한다. 이런 모습이 당시 여성의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었겠지만 이렇게 친정의 혈통을 잇기 위해서는 시댁을 나와야 할 만큼의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당시의 세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⁵⁷⁾ 친정아버지가 파직 당해 멀리 운남의 포정사로 가게 되자 시집간 지 4년 된 딸이 남편의 박대를 받고 사느니 차라리 아버지를 따라가야겠다고 생각하고는 시부모의 허락을 받고 따라가는 경우⁵⁸⁾도 있다.

54) <소현성록> 2권 19면.

55) 운명이 공역(工役)을 모아 이상서의 사당을 세우고 영위(靈位)를 봉안하자 이씨가 몹시 슬퍼하며 감격스러워 하였는데 부모의 제사에 소씨의 덕을 마침내 입은 것이었다. <소현성록> 10권 77면.

56) 설씨는 다만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어 마침내 끈은 마음을 지쳐 설상서의 제사를 이었다. 설씨가 자녀가 있는 후에는 더욱 영릉후가 오는 것을 우습게 여겨 쓸쓸히 세상사를 잊고자 하였다. (중략) 시댁에 들어가 남편의 총애를 받기를 사양하고 물러나 부모의 사당을 지키니 효와 의(義)가 한가지로 빛나는 것이었다. 높은 이름을 명나라 조정에서 상대할 사람이 없었다. <유씨삼대록> 6권 34~35면.

57) 한길연, 앞의 논문. 184~188면.

58) ‘…… 학사가 나를 박대하기를 1년이나 하면서 한 번도 나에게 물어보는 일이 없다가 시어머님께서 열 번 말씀하시면 한 번 나를 보러 오면서도 괴로워하고 증오하는 기색이 매번 더 심하여 언행이 어젯밤의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나를 욕함이 오늘에 미치게 되었다. 시부모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므로 나의 신체가 더욱 편하지 못하고 학사가 괴로운 기색을 짓고 있구나. 부형이 엄하게 가르침이 지극하니 학사가 만일 순

한편, 서사의 중심이 되는 가문의 딸은 혼인한 후에도 친정 오빠들의 사랑과 비호를 받는다. 특히 자신보다 지위가 낮고 가난한 집안으로 시집 갈 경우에 그 정도가 더욱 심한데, <소현성록>의 소수빙의 경우를 보자.

운경 등 10인의 형제가 함께 들어와 자리에 앉았다. 예(禮)를 무사히 지낸 것이 다행이라고 말한 후 수빙 소저가 슬퍼하는 것을 보며 모두 위로하였다.

“사람마다 부모를 떠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다. 게다가 우리가 아버님을 모시고 조회에 참여한 후에 날마다 와서 너를 보고 갈 것이다. 또 네가 3년에 한 번 근친(覲親)하는 것은 떳떳한 일이니 어머니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부질없이 슬퍼하지 마라.”

소저가 더욱 슬퍼 소리를 토하며 눈물을 흘려 우는 것을 그치지 못하니 눈물이 흘러 옷을 적셨다. 모든 형제들이 다 기쁘지 않아 두 번 세 번 위로하였는데, 운성은 특히 마음 속으로 매우 애처롭고 불쌍하여 차마 보지 못하고 앞으로 나와 앉으며 온화하게 말하였다.

“무슨 일 때문에 슬퍼하여 남이 이상하게 여기게 하느냐? 부모가 그리우면 기별을 해라. 그러면 와서 데려 갈 것이다.”

그러고는 상에 놓여 있는 죽을 친히 들어 권하며 말하였다.

“네가 오늘 아침을 먹지 않았는데 저물도록 고생하니 몸이 많이 상했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마셔야 돌아가서 어머니께 말씀을 드려 염려를 더시게 할 것이다.”

모든 형제들이 함께 권하니 소저가 마지못하여 죽을 마셨다.⁵⁹⁾

비록 재능이 특별한 선비 김현에게 시집가는 것이지만 소씨 가문처럼

중한다면 내 몸이 구차하고, 고집과 껌기로 부모의 명을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시아버님의 노기를 돋우어 학사가 매를 맞기에 이를 것이니 그때 내가 어찌 편하리오? 마땅히 물러가 부모를 모시고 일생을 마쳐 저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나의 구차하게 욕됨을 면하리라.’ <유씨삼대록> 6권 50면.

59) <소현성록> 12권 128~129면.

혁혁한 가문의 딸이 가난한 집안과 혼인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모든 식구들이 슬퍼하면서 혼인의 예를 치른 후, 사돈댁에 따라간 형제들이 소저의 방에 들어와 위로하는 장면이다. 앞으로 조정에 드나들면서 날마다 찾아올 수도 있으니 슬퍼하지 말라고 다독이고 배고플 테니 죽을 먹이라고 권하는 살가운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다가 신랑이 들어오자 오늘은 수빙이 피곤할 터이니 다른 방에서 자라고까지 한다.⁶⁰⁾ 비록 다른 형제들의 만류로 그 날 합방하기는 했지만 오빠들의 마음을 잘 드러내 주는 대목이다. 결국, 수빙은 나중에 소씨 집안과 가까운 곳에 따로 집을 지어 살게 되는데 이때에 형제들이 힘을 모아 집을 지어주고 월급을 모아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⁶¹⁾ 월영 등과 마찬가지로 그녀도 한 달 중 열흘은 친정에 머무르며⁶²⁾, 남편의 말이 마땅하지 않으면 당차게 의견을 피력하

60) 갑자기 김현이 들어오니 소저가 일어섰으나 모든 형제들은 다 움직이지 않았다. 김현이 자리에 앉자 윤성이 쩡그렸던 미간을 펴고 웃으며 말하였다. “그대의 간절한 뜻이 금석(金石)같으니 우리들이 감격하였고 아버님께서도 연약한 동생으로 하여금 그대의 뜻을 밟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일찍이 예가 아닌, 억지로 한 혼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대는 구구하게 후회 해주지 말고 다만 업신여기거나 않았으면 합니다. 내 누이가 본래 어려서부터 병이 많았는데 오늘 혼례를 지내고 기운을 수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대는 마땅히 나가서 자고 연약한 누이가 조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하고는 두 시녀와 유모를 돌아보며 말하였다. “소저를 조심하여 편히 모셔라.” <소현성록> 12권 129~130면.

61) 모든 생들이 사랑하는 누이가 수많은 고초를 겪은 후 집을 이루게 되었으니 재물을 내놓을 뜻이 끝이 없었다. 그러나 집안 법도가 엄숙하기에 사사로운 것이 아님을 승상께 말씀드린 후 겨울 석 달 동안의 월급을 보낼 수 있었는데, 여덟 사람의 녹봉이 후하였으므로 그것이 무수하여 받아 쌓을 곳이 없었다. 이를 통해 승상은 자녀들의 극진한 우애를 보았다. 소현성은 각별히 준 것이 없지만 석부인과 태부인이 공급하는 것이 언덕이나 산 같이 많고 소부인, 윤부인 두 숙모와 화부인이 또한 금과 은 그리고 재화와 천을 소저에게 주었다. 더욱이 윤성은 자신의 식읍 다섯 곳에서 오는 것의 반을 나누어 누이에게 주니 소저의 풍요로움이 공주보다 못하지 않았다. <소현성록> 13권 79~80면.

62) “…… 부인은 친정에 가서 한 달 중 열흘은 머무니 나 혼자 빈 방 지키는 것이 괴롭습니다.” <소현성록> 13권 114~115면.

니 남편은 아내가 자신을 경시한다고 느낄 정도로 도도한 태도를 보인다.⁶³⁾ 이런 태도도 자기 가문에 대한 자부심과 친정 식구들의 든든한 보호에서 나온 것이다.

부부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국문장편 고전소설에서는 일부다처(一夫多妻)의 혼인 제도를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서너 명의 아내를 두고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일곱 명까지 두며 서녀(庶女)나 기녀(妓女)인 첩도 둔다. 당시 조선에서는 첩은 여럿 둘 수 있었지만 아내를 여럿 둘 수는 없었다. 하지만 소설에서는 부부간 힘겨루기의 긴장감, 처처(妻妻) 갈등의 긴박함을 위해 작중 배경인 중국의 풍속을 따른 듯하다. 조선 사회에서 처와 첩의 위상은 너무나 현격하게 달랐다⁶⁴⁾기 때문에 갈등이 첨예화되기 힘든 까닭이다.

아내가 여럿인 상황에서 남편은 공정하게 아내들을 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조신한 아내에게 책망을 받기도 하고 처처갈등을 야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첫째부인을 특별히 배려하여 다른 부인들에 비해 더 많은 날을 함께하고 첩은 훨씬 적은 날을 함께하는 식으로⁶⁵⁾ 차등을 둔다. 또한 부인들과 늘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의 1/3정도는 아버지를 모시고 외당(外堂)이나 서헌(書軒)에서 잔다.⁶⁶⁾ 그 중 며칠은 조부를 모시

63) 김현이 다 듣고는 어이없어 마지못해 웃으며 말했다. “부인이 나를 어리석은 사나이라고 깔보고 이렇게 방자하게 구니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 <소현성록> 13권 121면.

64) 정연식, 『일상으로 본 조선시대 이야기 2』, 청년사, 2001. 159~172면.

65) 집안의 범도가 삼엄하여 운성은 마음을 다잡아 15일은 형부인과 있고 5일은 소영과 즐기며 10일은 부친 곁에서 시중을 들었다. 한편, 소승상은 자식들이 자라고 나이가 많아지면서 여색(女色)을 더욱 우습게 여겼다. 지난날에는 10일씩 두 부인에게 들어 가던 것을 오히려 줄여 수개월이 지난 후 3, 4일씩 부인 숙소에 머물렀다. <소현성록> 9권 7면.

66) 승상과 선생의 우애가 갈수록 두터워져 한 시도 떠나지 않고 서헌에서 모시고 여러 시사(詩詞)와 예도(禮度)에 대해 문답을 나누며 중요하거나 긴급한 사건이 아니면

기도 하는데 아버지를 모시고 자는 날에는 다른 형제들과도 함께 지내면서 남자로서 지켜야 할 행실에 대해 배우고 친목을 다지는 것이다. 그러나 한 명의 아내는 한 달 중 5일에서 10일 정도만 남편과 함께할 수 있는 것이어서 자연스럽게 애정과 관련된 갈등이 종종 전개되는 것이다.

또 부부라도 낮에는 한 곳에 머무르지 않으며 자녀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에서조차 서로 말을 걸고 웃어서는 안 된다. 간혹 젊은 부부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부모대의 바른 행실을 보고 스스로 고친다.⁶⁷⁾ 아내가 너무 기운이 강해 뻗뻗하게 대하거나 동침을 거부하면 남편은 그녀의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 냉대하거나 창기와 함께하기도 한다. 이런 남편을 다른 가족들도 두둔하는데 심지어 친정어머니까지도 딸을 나무라면서 유순해지라고 한다.⁶⁸⁾ <유씨삼대록>의 옥영의 경우가 그러한데, 나중에는 잘못을 뉘우쳐 소박하고 온화한 성품이 되었는데⁶⁹⁾ 남편

안채를 찾지 않으니 서로 의지하는 것이 이처럼 각별했다. 여러 자제들 또한 감히 자기들의 처소에 전혀 머물지 못하고 십여 일씩 번갈아 가며 두 어른(아버지와 숙부 : 필자 주)을 모셨다. <유씨삼대록> 7권 86~87면.

67) 자녀들이 모인 곳에서도 부인에게 말을 걸고 웃는 법이 없었다. 더욱이 낮에 한 당(堂)에 모이는 경우는 없었다. 여러 자식들은 소년의 허황됨이 심하여 처자(妻子)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례할 정도였으나 부친의 행동을 보고는 자신들이 무례한 줄 알고 스스로 부끄러워하였다. 평상시에는 어렵고 꺼림이 심하여 낮에는 가볍게 한 당에 모이지 못하고 부부가 서로 공경하였다. 또한 부친이 밤낮으로 외당(外堂)에서 지내기에 모든 아들들이 두 명씩 번갈아 숙직을 들면서 10일씩 모시고 지냈다. 진실로 부형(父兄)이 어지니 자제들이 본받아 수행하는 것이 이와 같았다. <소현성록> 9권 7~8면.

68) 사어사가 일어나 소저를 향하여 말하였다. “내가 머물러 밤을 지내고자 하나 부인이 더럽게 여기니 물러가 두 창기로 객회를 위로하고 내일 나아와 문병하리라.” 사어사가 풍월을 읊으며 두 여자와 더불어 외당에 나와 밤을 지냈다. 소저가 분하여 탄식하면서 말하였다. “저가 이제 나를 온갖 짓으로 희롱하고 놀리며 능멸하고 부모형제가 한가지로 나를 용납하지 않으니 세상에 욕되게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죽는 것만 같지 못하도다.” <유씨삼대록> 5권 22면.

69) 소저가 조금이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시비를 가리지 않고 사어사가 곤욕하고 질타함

사어사가 계속하여 박대하자 마음의 병이 나 거의 죽게 되기까지 한다. 진양공주의 침술로 살아난 옥영이 날카로운 기운을 꺾고 아녀자의 도를 닦자 그제야 남편의 신의가 생긴다.⁷⁰⁾ 이렇게 유순한 성품의 아내이기를 바라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약해서는 안 된다. 남편이 6개월 정도 출전하게 되었을 때에도 눈물을 흘리거나 근심스러운 빛을 보여서는 안 되고 평소와 같이 행동해야 한다.⁷¹⁾ 의연하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고전소설 속 가족 간의 관계 양상은 지금과 많이 다르며, 어쩌면 소설 속에서 만들어낸 특별한 경우일 수도 있다. 하지만 ‘성춘향’이나 ‘베르테르’ 등 소설 속 인물들은 부분적이면서 개별적인 어떤 것을 그대로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인간다움이 무엇인가를 말하기 위해 그렇게 형상화해 놓은 것⁷²⁾이라고 보는 것처럼, 이들을 하나의 사건이나 인물로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보편적인 의미를 찾을 수

이 매우 심하였다. 세월이 자주 바뀌나 외당에서 회침과 더불어 세월을 보내기에 금슬의 즐거움이 끊기었다. 소저의 강한 기운은 날로 사라지고 사어사가 걸로만 흔쾌한 모습을 볼 때마다 그가 깊이 내외함을 깨달았다. 또 부부간에 친하다고 해서 거만하고 무례하지 못할 줄 깨달아 부끄러워하고 조심조심하며 온순하게 몸을 낮추는 것이 도리어 자매 중에서 가장 심하였다. <유씨삼대록> 5권 31~32면.

70) 어사가 본래 소년의 호방한 성품으로 소저의 하늘이 내린 빼어난 미모를 대하여 정이 적지 않았으나 심지가 넓고 원대하므로 소저의 행동에 흠이 있다 여겨 정을 끊어 수년간을 아내 없이 지내고, 온갖 방법으로 괴롭게 하여 그 날카로운 기운을 꺾고 몇 개월 함께 지내면서도 마음을 열지 않았었다. 그러나 소저의 열렬한 성품으로 조금 강한 점이 있으나 본래 천성은 단아하며 남편을 위한 예법과 정성으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을 보고 감격하였다. 이로부터 잡스런 뜻이 없고 소저를 향한 애정이 태산 같았다. 소저가 비록 어사를 믿지 아니하나 또한 하릴없어 억지로 부녀자의 도를 닦으니 자연 남편인 사어사가 신의가 있게 되어 유소저가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 <유씨삼대록> 5권 59면.

71) 화부인은 맑은 눈물이 꽃 같은 뺨을 적셨지만 석부인은 행동거지가 평소와 같으며 조금도 근심스러운 빛이 없었다. <소현성록> 11권 4면. / 석부인이 안색을 바르게 하고 단정히 앉아서 조금도 근심스러운 빛을 두지 않았다. <소현성록> 11권 7면.

72) 김대행외, 앞의 책. 45면.

있는 독서를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학생들은 국문장편 고전소설 독서를 통해 포괄적인 안목을 기르고 이와 더불어 관점의 상대성과 개별성도 이해하는 방향으로 교육되어, 결국에는 자기 정체성을 갖추게 됨으로써 인격의 성장으로 이어지는⁷³⁾ 문학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3) 놀이와 여가 생활 - 긴장·이완의 교직 통한

서사 진행의 완속미 감상

국문장편 고전소설에서는 여성들이 모여 놀이를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놀이 그 자체의 오락성보다는 어떤 서사적인 기능을 위해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⁷⁴⁾ 예를 들어 소현성과 석소저가 혼인한 후 1년이 지나서야 첫 낄밤을 보낸 것을 확인하기 위해 식구들을 모이게 하여 투호(投壺)⁷⁵⁾나 쌍륙(雙六)⁷⁶⁾을 하게 한다.⁷⁷⁾ 주로 집안의 최고 어른이 딸과 며느리를 불러 놀게 하는데, 투호와 쌍륙 모두 화살이나 주사위 돌을 던질 때에 팔을 걷고 하므로 처녀의 팔에 있는 앵혈의 유무(有無)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

또는 정색을 하고 진지하게 말하기 어색한 내용을 자연스럽게 말하기 위해 놀이의 자리를 마련하는 경우들이 있다. <소현성록>에서 소운성은

73) 김대행외, 앞의 책, 47~49면.

74) 그래서 필자는 국문장편 고전소설에 나오는 남성과 여성의 놀이를 포괄하여 그 양상과 서사적 기능을 살피는 연구를 후고로 준비하고 있다.

75) 투호(投壺) : 화살같이 만든 청홍의 긴 막대기를 갈라 가지고 일정한 거리에 놓인 병 속에 던져 꽂아 넣는 놀이.

76) 쌍륙(雙六) : 상륙(象陸)이 원말이기는 하나, 현재 표준어는 쌍륙(雙六)이며 한자도 이같이 표기함. 여러 사람이 편을 갈라 차례로 돌을 던져서 나오는 사위대로 판에 말을 써서 먼저 궁에 들여보내는 내기 놀이.

77) <소현성록> 2권 63~64면.

첫째부인 형씨와 혼인하기 전에 서모인 석파가 데려다 키우던 소영을 겁탈하여 석파가 장난으로 운성의 팔뚝에 찍어 놓은 앵혈을 없앤다. 그 이유로 소영을 운성의 첩으로 들이는데 이를 형씨가 좋아하지 않을 것이기에 평소에 투호를 잘하던 형씨의 기분을 좋게 하고 가족들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모이게 하기 위해 투호 놀이 자리를 마련한다. 과연 형씨가 투호를 잘하자 이를 칭찬하면서 소영을 데려와 인사하게 한다. 소영에게 정실부인에게 깎듯이 하리는 당부를 하고 절을 받은 형씨도 온화한 얼굴로 대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하루는 화부인과 석부인이 세 며느리에게 투호(投壺)를 치게 하였는데, 모두 형씨에게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자 화부인이 웃으며 말하였다.

“형씨가 잡기(雜技)를 묘하게 잘 하니 진실로 운성의 배필이로구나.”

말이 끝나기 전에 석파가 소영을 이끌고 나와 석부인에게 아뢰었다.

“낭군의 사나움 때문이었지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석부인이 낭랑히 웃으며 말하였다.

“이것도 하늘의 운수입니다. 서모는 어찌 운성을 꾸짖습니까? 하지만 어머님과 승상이 허락하셨으니 어찌 죄를 일컬겠습니까? 다만 정실(正室)을 공경하여 섬기고 마음을 공손히 하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석파가 크게 웃고는 소영을 돌아보고 말하였다.

“이미 승상과 부인이 허락하셨으니, 너는 형소자를 뵈어라.”

소영이 나아가 돛자리 앞에서 네 번 절하고 난간 밖에 앉았다. 형씨가 기색이 태연하여 흔쾌히 절을 받고 모든 동서와 함께 말씀하는데, 유순하고 편안하며 온화한 기운이 온 자리에 쏘였다. 그러니 태부인이 칭찬하고 석부인이 애중함은 비길 데가 없었다.⁷⁸⁾

78) <소현성록> 5권 92~93면.

<조씨삼대록>에서는 유현의 아내 강씨가 악한 행실을 했던 것을 다투치고 선한 사람이 되었는데도 유현이 좋게 대해주지 않자 태부인이 여러 손자며느리들을 불러 모아 바둑 두는 자리를 마련한다. 강씨가 바둑을 제일 잘 두고 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자 그 모습을 사랑스러워하면서 유현에게 그녀를 후하게 대접하라고 당부한다.⁷⁹⁾ 그러자 그 후부터 유현이 그녀를 진정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여성의 지혜가 뛰어난 모습을 보이기 위해 남편과 바둑 내기를 하게 하기도 한다. <유씨삼대록>의 진양공주는 여러 면에서 뛰어난 인물인데, 남편 진공과 바둑 내기를 하면 세 판을 두어 세 판을 모두 이길⁸⁰⁾ 정도로 비범하다.

서모와 딸들, 며느리들이 후원에서 꽃구경을 하기도 하고 간단한 술자리를 마련하기도 한다. 돌아가면서 술을 먹이며 자신의 옛 일들에 대해

79) 하루는 태부인이 여러 손자며느리들에게 바둑을 두게 하였는데 강씨를 이기는 사람이 없었다. 어른들의 면전에서 칭아하고 맑은 목소리로 꽃이 웃음을 머금고 옥이 향기를 뿜는 것 같으니, 태부인이 저 같은 기질로 어찌 예전의 죄과를 지었는지 몰라 하며 박명하고 애련함을 불쌍해 하였다. 유현이 들어와 태부인을 뵈었는데, 태부인이 자기 부인들과 여러 제수와 누이들이 가득한 중에 강씨를 애련해 하심이 정씨와 같았다. 유현이 모시고 앉아 있는데 태부인이 웃으며 말하였다. “오늘 네 부인 셋이 내 앞에서 바둑을 두는데 강씨가 제일이다. 예전의 잘못이 있지만 마음이 고쳤으니, 명량하고 총명한 것이 진실로 내게는 효부다. 네가 어찌 계속 박정하게 대하여 부부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느냐? 내가 강씨를 불쌍히 여기니, 너는 내 청으로 강씨를 후하게 대우해라. 그러면 어찌 좋지 않겠느냐?” <조씨삼대록> 19권 102~104면.

80) 진공이 공주로 하여금 미처 손을 놀리지 못하게 요해처를 막았다. 그러나 공주가 열 굴뚝을 변하지 않고 눈길을 낮추어 천천히 한 손으로 바둑을 어루만져 하늘의 별들이 365일 동안 운행하는 모습을 성대하게 박아 하도낙서(河圖洛書)를 판 위에 찬란하게 빛나게 하니 천지간에 풍운(風雲)을 다스리는 도사인 용과 호랑이가 왕래하는 듯하였다. 태을(太乙)의 단상에서 몸은 뱀이고 머리는 사람인 복희(伏羲)로 하여금 하늘의 온갖 별들을 그리게 하여도 이에서 더 잘 하지 못할 것이었다. 진공이 눈이 아득하고 생각이 막히니 손을 움직이지 못하였다. 세 판을 두어 공주가 크게 이겼다. <유씨삼대록> 4권 91면.

이야기하게 하여 함께 웃기도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하면서 돈독한 정을 나눈다.⁸¹⁾ 독자들에게는 지금까지의 서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게 해주는 역할도 한다.

한편, 여성들이 집 밖으로 나가기도 하는데, 유산(遊山), 천자의 행차 구경, 별장으로 여행가기 등이 행해진다. <소현성록>에서 소승상은 자녀들을 모두 데리고 유산을 할 때에 태산(泰山)과 형산(衡山)으로 딸들도 데리고 가서 십수 일을 유람하면서 돌아가며 글도 짓고 고하(高下)를 정하면서 즐긴다.⁸²⁾ 어머니가 딸과 며느리를 데리고 천자가 사냥하고 활쏘기 연습하는 곳으로 구경 가기도 하는데, 비록 집과 가까운 곳이지만 쉬수 있는 숙소를 정해놓는다. 이때에 우연히 다른 집안 부인네들과 같은 숙소를 쓰게 되기도 하는 점을 이용하여 사돈 될 사람과 첫 대면하는 자리로 설정하기도 한다. 소현성의 둘째부인이 되는 석소저와 그 어머니 진부인을 양부인과 소씨 등이 만나 인사를 나누게 되는 장면이다.

천자(天子)께서 남문(南門) 밖에 나와 사냥하시고 활쏘기를 연습하셨다.
이는 자운산에서 매우 가까운 거리여서 소씨가 양부인에게 알려 말하였다.

81) 소씨가 윤씨와 함께 백화헌으로 갔는데 상서가 마침 나갔기에 이곳이 고요하였다. 두 사람이 꽃들을 구경하다가 시녀에게 이·석 두 서모와 화부인과 석부인을 나오게 하였다. 네 사람이 모두 오니, 소씨가 좌우 시종들에게 소나무 정자 아래에 용문석을 깔라 하고 벌여 앉아 술과 안주를 내오게 하였다. 석소저가 술을 먹지 못하니 소씨와 윤씨 두 사람이 강제로 권하였다. 소저가 억지로 한 잔을 먹으니 아름다운 얼굴빛이 눈부시도록 어지러웠다. 석과가 기특하게 여기고 어여뻐 여겨, 갑자기 주홍(酒興)이 솟아나 팔을 걷고 일어나 말하였다. <소현성록> 2권 65면.

82) 아버지와 자녀 11명이 태산에 이르러 산수를 구경하였다. 산천경개(山川景概)가 비할 데 없이 빼어나게 좋고 화려하여 가히 다섯 산 중에서 으뜸인 줄을 알만했다. 승상이 십수일 동안 유람을 하며 좋은 경치를 대하면 스스로 글을 짓고 끝에 모든 자녀들이 연달아 구를 짓게 하여 고하(高下)를 정하며 즐기느라 돌아갈 줄을 몰랐다. <소현성록> 12권 62면.

“임금께서 사냥하시는 행사가 크게 열린다 하니 저는 화씨와 함께 마땅한 곳을 잡아 구경하러 합니다.”

양부인이 말하였다.

“그것이 뭐 어렵겠느냐? 나도 과부로 지내게 된 후에는 마음을 호화로운 것에 두지 않았으나, 경과 한생이 반열(班列)에 참석하는 것을 보러 가 봐야겠다.”

소상서가 모친께서 가려 하시는 것을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다. (중략) 화씨는 처음에는 함께 가려 했으나 석파가 가는 것을 보고 병을 핑계로 물러나니 양부인이 구태여 권하지 않고 딸과 함께 숙소에 이르러 천자의 거동을 기다렸다. (중략) 석공의 부인 진씨가 천자의 사냥하심을 구경하려고 숙소를 잡아 숙난 소저와 함께 온 것이었다. 소저가 처음에는 즐겨 가지 않으려 하여 진부인이 우겨서 데리고 이곳에 이르렀는데 뜻밖에 소씨 집안 숙소와 같은 곳이 되니, 이미 돌아가지 못하게 되었고 하물며 이전에 알고 지내던 사이여서 흔연히 들어갔다. 하지만 매우 불편해 하며, 여기에 온 것을 후회했다. 석파가 웃음을 머금고 맞이하여 중청(中廳)으로 들어왔다.⁸³⁾

놀이가 그랬던 것처럼 이 행사 구경도 실은 서사 전개를 자연스럽게 이어가고 집안에서만 진행되는 서사의 무료함을 없애기 위해 만들어낸 화소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렇게 거리 행사를 구경하는 것은 당시의 양반 부녀들이 할 수 있는 즐거운 외출이자 놀이였다. 중국에서 사신이 오거나 왕이 행차할 때 그 행사를 구경했는데 미리 길가의 작은 집에 가서 머물며 하룻밤을 지내는 경우도 많았다.⁸⁴⁾

작품 후반부에서 또 한 번 양부인과 소씨, 석씨가 집을 비우는 일이 있는데, 이는 소현성과 운경, 운성이 몇 개월 출전한 사이에 적적해 하는 양

83) <소현성록> 2권 29면.

84) 정지영, 『금하고자 하나 금할 수 없었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조선 여성의 일생』, 글항아리, 2010. 174~176면.

부인의 마음을 달래려 ‘강정⁸⁵⁾’에 간 일이다. 이곳은 양부인의 의붓딸인 윤씨가 사는 곳인데 자운산과는 멀리 떨어져 있어 쉬러 가거나 잠시 피신하는 별장과 같은 기능을 하는 곳이다. 집안의 어른적인 여성들이 함께 떠난 이 여행도 실은 집안의 어른이 부재한 때에 집안의 큰며느리인 화씨가 현명하게 집안을 얼마나 잘 다스리는지, 혹은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 어지럽게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계기로서의 의미가 크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국문장편소설에서는 인물간의 갈등이 고조되거나 긴장이 팽배해 있을 때 놀이나 여가 생활을 서사의 중간에 삽입함으로써 분위기를 이완시키거나 서사를 매끄럽게 진행해 나간다. 우리가 예술로서의 문학에서 배울 점은 미적 가치의 추구라고 할 수 있는데 문학의 미의식은 다시 송고, 우아, 비장, 골계 등의 범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바⁸⁶⁾, 소설에서의 서사 구조의 완숙미를 감상하고 인물들의 행위에서 느낄 수 있는 우아미, 골계미 등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4. 맺는 말

본고에서 필자는 대학의 교양 교육에서 우리의 고전문학 작품을 읽히

85) ‘강정’은 일종의 별장이며 도성에서 이십여 리 정도 떨어진 곳으로 보이지만 정확하지는 않다. <유씨삼대록>에서는 유현이 아버지 진공에게 내쫓겨 가 있는 곳으로 나온다. / 유현이 강정으로 내쫓겼는데 이 강정은 도성 남문 밖 20리에 있었다. 앞으로 구교강이 있고 뒤로는 금화산이 있어 경치가 빼어나므로 진공은 이 경치를 사랑하여 이곳에 채색 단청으로 꾸며진 1천여 칸의 정자를 지어놓았다. 다락은 하늘에 닿을 듯하고 백옥 기둥은 붉은 모래 바위에 박혀 있었으며 푸른 박공과 아로새긴 기둥은 강물 가운데서 밝게 빛나고 있었다. 이미 궁관과 집안 일꾼이 이곳을 지키고 있었으나 진공에서 50여 리 떨어진 곳이라 서로 거리가 멀고 산천이 길게 막혀 왕래가 드물었다. <유씨삼대록> 11권 1면.

86) 김대행외, 앞의 책. 59~60면.

고 감상하게 해야만 하는 필요성을 제시하고, 그 일환으로 국문장편 고전소설을 수업의 제재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국문장편 고전소설은 가족사 서술의 전형과 서사 기법의 완숙미를 보여주며 세련된 장편화 방식을 맞볼 수 있게 한다. 또 다양한 인물들이 생생하게 묘사되고 선악의 대비, 주변인물들의 활약을 통한 재미를 확보하고 있으며, 독서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독자들의 지적인 호기심을 만족시켜 준다. 아울러 삶의 다양한 국면들이 반영되거나 굴절되어 있기 때문에 당대인들, 특히 여성 향유층의 생활과 욕구를 보여준다는 면에서 교육 대상으로서의 의의를 지니고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다음으로는 수업 시간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추출하였는데, 국문장편 고전소설에 담긴 여성의 생활 문화를 일상적 의무와 의식주, 가족 내에서의 인간관계, 놀이와 여가생활의 항목으로 나누어 살폈다. 이러한 내용을 교육함으로써 학생들은 옛 여성들의 일상생활을 간접 경험하여 자신이 몸담고 살고 있는 거대한 공동체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이해하고 한 민족이라는 동질감도 느끼게 될 것이다. 또한 가족 내에서의 자기 존재의 위상에 대한 성찰을 하게 되고 가족 의식도 높게 될 것이며, 아울러 소설 속에서 갈등이나 긴장이 고조되다가 놀이나 여가 생활 등의 화소가 삽입되면서 분위기가 이완되는 서사 진행의 묘미를 감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국문장편 고전소설들은 대장편이기에 현대역본으로 읽더라도 독해에 어려움이 있어 학생들이 쉽게 좋아하기는 힘들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수업 시간에는 해당 예문들을 입력한 화면을 빔 프로젝터를 통해 보여주고 해당 장면이나 서사 전개를 도표화하거나, 이야기되고 있는 화소의 중요 인물을 중심으로 일정 부분의 서사를 재구성하여 보여준다거나, 현대의 소설이나 중국의 소설에서 유사한 대목을

함께 논의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높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 이들 고전소설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학생들이 작품과 능동적으로 소통하여 주체적으로 경험하고 의미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면, 앞으로는 좀 더 폭넓게 읽힐 수 있을 것이다. 옛 여성들의 일상생활은 어떠했는지, 옷은 어떤 것을 입었고 어떤 곳에서 살았는지, 부모-자녀 간 관계는 어떠했고 부부간, 남매간 관계는 어떠했는지, 여기는 어떻게 즐겼는지 등에 대해 알 수 있게 해 주는 대목들을 읽으면서 자신 또는 가족 등 주변인들의 삶과 비교하거나 감정이입을 해보기도 하고 의복, 주거 공간, 장면 등을 연상하거나 재구성해봄으로써 고전문학에서 다루는 삶도 지금 자기 옆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들 국문장편 고전소설들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것은 최상층 여성들의 생활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생활 문화가 비단 그 일부의 것만이 아니었고 수많은 독자들이 열독할 만큼 공감을 얻어내거나 향유층의 욕망과 염원을 담았던 것이기에 현대의 우리도 읽고 감상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 설계한 과목을 통해 학생들은 실제 생활을 그대로 기록한 문서나 역사적 자료로 선인들의 생활을 보는 것과는 또 다른 면에서, 즉 삶의 진지함과 이야기의 흥미진진함을 동시에 맛보면서 옛 여성들의 생활에 대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조혜란·정선희·허순우·최수현 역주, 『소현성록』1~4권, 소명출판, 2010.
 한길연·김지영·정언학 역주, 『유씨삼대록』1~4권, 소명출판, 2010.
 김문희·장시광·조용호 역주, 『현몽쌍룡기』1~3권, 소명출판, 2010.
 김문희·조용호·정선희·전진아·허순우·장시광 역주, 『조씨삼대록』1~5권, 소명출판, 2010.

- 김지영·최수현·한길연·서정민·조혜란·정언학 역주, 『임씨삼대록』1~5권, 소명출판, 2010.
- 권순궁, 「대학 고전소설교육의 지향과 방법」, 『한국고전연구』15집, 2007. 6. 27~58면.
- 규장각한국학연구원편, 『조선 여성의 일생』, 글항아리, 2010. 108~238면.
- 김대행외, 『문학교육원론』, 서울대 출판부, 2008. 1~481면.
- 김문희, 「〈조씨삼대록〉의 서술전략과 의미」, 『고소설연구』26집, 2008. 12. 149~178면.
- 김문희, 「장편기문소설의 전고와 독서 역학적 연구」, 『한국고전연구』21집, 2010. 6. 201~232면.
- 김종철, 「장편소설의 독자층과 그 성격」, 『고소설의 저작과 전파』, 아세아문화사, 1994. 433~471면.
- 박일용, 「현몽쌍룡기의 창작방법과 작가의식」, 『정신문화연구』26권 3호, 2003. 3. 1~53면.
- 서유경, 「고전문학교육 연구의 새로운 방향」, 『국어교육』123집, 2007. 6. 131~157면.
- 신동훈, 「21세기 구비문학 교육의 한 방향-“신화의 콘텐츠화”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15집, 2007. 6. 59~87면.
- 양민정, 「대하 장편기문소설에 나타난 여성인식과 의의」, 『연민학지』8, 2000. 131~167면.
- 염은열, 『고전문학의 교육적 발견』, 역락, 2007.
- 이순규, 「조선시대 여성의 일과 생활」, 한국여성연구소 여성사 연구실 저, 『우리 여성의 역사』, 청년사, 1999. 191~224면.
- 이상익외, 『고전문학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집문당, 2007. 11~919면.
- 이지영, 「조선후기 대하소설에 나타난 일상-〈완월회맹연〉을 중심으로」, 『국문학 연구』13, 국문학회, 2005. 6. 33~56면.
- 이지하, 「조선후기 여성의 어문생활과 고전소설」, 『고소설연구』26집, 2008. 12. 303~331면.
- 장시광, 「대하소설의 여성반동인물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04. 1~176면.
- 장시광, 「조선후기 대하소설과 사대부가 여성 독자」, 『동양고전연구』29집, 2008. 6. 147~175면.
- 정병현, 「대학 고전문학 교육의 현상과 전망」, 『한국고전연구』15집, 2007. 6. 131~

157면.

- 정선희, 「〈소현성록〉에서 드러나는 남편들의 폭력성과 서술 시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4, 2007. 6. 453~487면.
- 정선희, 「〈조씨삼대록〉의 악녀 형상의 특징과 서술 시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8집, 2009. 6. 389~419면.
- 정선희, 「17세기 후반 국문장편소설의 딸 형상화와 의미-〈소현성록〉연작을 중심으로」, 『배달말』45, 2009. 12. 425~460면.
- 정연식, 『일상으로 본 조선시대 이야기 2』, 청년사, 2001. 15~247면.
- 정창권, 『홀로 벼슬하며 그대를 생각하노라 -미암일기』, 사계절, 2003. 1~279면.
- 전진아, 「장편한문소설 <청백운>의 일상 재현방식의 의미」, 『이화여문논집』24·25 합집, 2007. 63~82면.
- 조용호, 『삼대록소설 연구』, 계명문화사, 1996. 1~230면.
- 조혜란, 「조선 시대 여성 독서의 지형도」, 『한국문화연구』8집, 2006. 30~56면.
- 조혜란, 「취향의 부상-〈임씨삼대록〉의 반복 서술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37집, 2010. 6. 135~173면.
- 주재우, 「고전기행문학과 경험 교육」, 『고전문학과 교육』15집, 2008. 2. 89~111면.
- 지연숙, 「〈소현성록〉의 공간 구성과 역사 인식」, 『한국고전연구』13집, 2006.
- 최규수, 「대학생을 위한 고전시가 ‘교육’의 몇 가지 키워드」, 『한국고전연구』15집, 2007. 6. 89~112면.
- 최수현, 「〈임씨삼대록〉 여성인물 연구」, 이대 박사논문, 2010. 1~185면.
- 최운식의, 『설화·고소설 교육론』, 민속원, 2002. 1~966면.
- 탁원정, 「17세기 가정소설의 공간 연구-〈사씨남정기〉, <창선감의록〉을 대상으로」, 이대 박사논문, 2006. 1~180면.
- 한국고문서학회, 『조선시대 생활사』2, 역사비평사, 2002. 1~341면.
- 한국고소설학회, 『고전소설 교육의 과제와 방향』, 월인, 2005. 9~431면.
- 한길연, 「대하소설의 ‘일상서사’의 미학 -일상과 탈일상의 줄타기」, 『국문학연구』14, 국문학회, 2006. 5. 125~149면.
- 한길연, 「〈유씨삼대록〉의 ‘설초벽’ 연구」, 『국문학연구』19, 2009. 171~196면.
- 한옥공간연구회, 『한옥의 공간문화』, 교문사, 2004. 10~261면.
- 황수연, 「17세기 사족 여성의 생활과 문화-묘지명, 행장, 제문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6, 한국여성문학학회. 2003. 161~192면.

허원기, 『『곤범』에 나타난 여성 독자의 양상과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6, 2003. 231~257면.

허순우, 『〈현몽쌍룡기〉 연작 연구』, 이대 박사논문, 2009. 1~196면.

ABSTRACT

A Study on the Use of Classical Korean Novels as Course Materials to
Teach About Ancient Korean Women's Living Culture

Jeung, Sun-hee*

First of all, the present study attempts to shed light on the need for classical Korean novels to be widely read and appreciated by college students. Accordingly, the study suggests that classical novels should be taught in university liberal arts courses, so that students can have glimpses of the lifestyle of the past days as well as values and desires pursued by the contemporary women readers through the depictions of various aspects of human life in these works.

Secondly, this study recommends some topics to be taught in these courses concerning the living culture in which women in classical Korean novels existed. The topics derived are: 1) women's domestic duties and lifestyle in general; 2) their relationships with other family members; and 3) their entertainments and leisure activities.

Learning about details of everyday life that Korean women led in the past, students can gain insight on the lifestyle and values treasured at that time by the community the students belong to now. In addition, they will be able to empathize with the ancient women as members of the same race, and this insight will lead them to reflect on their positions in their own families. In terms of literary appreciation as well, they will be able to enjoy the narrative charm of classical novels, in which heightened conflict or tension is resolved or lessened by ensuing episodes of merrymaking and entertainments.

* Ewha Women's University.

Key Words classical Korean novel, Women's Living Culture, liberal arts courses,
everyday life, family, domestic duty, entertainment

논문투고일 : 2010. 10. 15

심사완료일 : 2010. 11. 26

게재확정일 : 2010. 12. 3